

‘합성 섬유’ 발견 야자매트 전면 교체·철거되나

광주 5개 자치구 최근 전수조사 실시
환경운동聯 표본조사 외 구간도 포함
市 “현장 점검”…조달청도 품질 조사

〈속보〉광주 도심 돌레길과 등산로 곳곳에 깔린 야자매트에서 합성 섬유가 발견돼 토질 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9월25일 6면 보도)과 관련, 광주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각 지역의 숲길, 탐방로, 돌레길

등에 설치된 야자매트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역민 이용이 잦은 돌레길과 산책로 등 7곳의 야자매트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지역에서 합성 섬유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5개 자치구에 설치된 야자매트 길이는 약 76km, 면적은 6천400여㎡ 규모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설치 현황은 ▲동구 학군단-깃대봉, 두암제2근린공원 등 9곳(2천280㎡) ▲서구 금당산, 좌봉산 등 3곳(190㎡) ▲남구 푸른길공원, 월산근린공원 등 14곳(3천424㎡) ▲북구 한새봉, 군왕봉 등 29곳(4천852㎡) ▲광산구 원당산, 월곡근린

공원, 황룡강 생태공원 등 11곳(3천6㎡)이다.

5개 자치구로부터 이 같은 현황을 전달받은 광주시는 현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구간 외에도 합성 섬유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구간에선 합성 섬유가 추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야자매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면 철거 후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조치는 다음 해에나 가능할 거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등산로 유실 방지 기능도 있어 정확한 조치 방안은 현장 확인이 끝난 후 각 자치구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며 “조달청에서도 야자매트 품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지자체에선 물품 구매 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데, 여기에 등록되는 물품은 환경 검사 등을 거친다.

야자매트의 경우 친환경 제품인 만큼 조달청은 납품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품질·환경 확인서 등 서류의 위조 여부와 기존 미달 제품이 등록된 것은 아닌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할 방침”이라면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이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별도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들어진다. 천연 성분이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토양 보습 등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지역에 설치된 야자매트 곳곳에서 합성 섬유가 발견되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미세플라스틱의 토양 침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전수조사 등 대책을 촉구했다.

/주성학 기자



돌봄세대 무료 수리 27일 광주 북구 운암2동 주민자치회원과 금파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내 돌봄세대에서 LED 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관내 특성화고가 함께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실종’ 추가 신고

최근 4건 늘어…오인 신고 1건은 종결
경찰, 12건 수사…귀국해도 계속 확인

광주·전남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국자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추가 실종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각각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의심 신고 2건이 최근 추가 접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40대와 9

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동남아시아 실종 의심 신고는 총 8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1명은 오인 신고로 종결됐다.

소재가 확인된 1명은 국내로 안전하게 귀국해 경찰이 출국 경위, 체류 과정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1명은 경찰과 통화가 이뤄져 신변이 파악됐지만, 대사관 출석 등 안전이 공식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남에서도 최근 베트남으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 확인에 나섰다.

이를 포함해 전남청에 접수된 실종 의심 신고는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여수에서 거주하던 30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가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져 대사관 출석 등을 안내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소재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광주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AI 확인…위기경보 ‘심각’

전국 집중 소독 축산 관계자 모임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21일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 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살

처분 보상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심각’ 단계 상황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기간을 단축하고 가금 관련 농장 등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무허가 또는 미등록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인 광주광역시 내 전체 가금농장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가금 계류장,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여수서 아동 욕조 방치…치료 나흘 만에 숨져

경찰, 친모 혐의 학대치사 변경

욕조 욕조에 있다가 중태에 빠진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치료 나흘 만에 숨졌다.

2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7분께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했다.

이 아이는 지난 22일 오후 12시30분께 여수시 자택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어머니 A(30대·여)씨는 아이를 씻기기 위해 유아용 욕조에 넣어둔 후 물이 차오르는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러다 욕조에 있던 사육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보러 갔으나, 울음소리

가 평소보다 힘없게 느껴져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등을 두드리는 등 응급 조치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긴급체포됐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는데, 여수경찰은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학대 혐의에 대해 A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